

한반도 분쟁과 평화: 과거, 현재, 미래

초록

2022년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남북한은 정면으로 충돌하려는 두 대의 열차처럼 행동하여 왔다. 필자는 먼저 남북 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후에, 전쟁과 같은 최악의 재앙을 피하고 평화공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은 서로가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군사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여 왔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열악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의 경제모델을 채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과연 전쟁이라는 파국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키워드: 남한, 북한, 힘의 균형, 국가안보, 국가경제, 평화공존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개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Choi 2022, Feb 9).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남북 상호 간의 대화보다는 북한을 협박하는 것이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 북한이 미국을 목표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은 북한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하였다(김민찬 2023, 12월 20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공언하고 있는 선제공격을 단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 만일 윤 대통령이 뺑카로 들리는 협박에만 의존한 대북 외교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011년에 김 위원장은 집안의 가업인 국가경영을 물려받아 27세의 나이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김 위원장 이전에는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였다.¹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은 자기 집안사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열정과 시간을 바쳐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전력투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협박(이나 미국의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Kim and Yamaguchi 2023). 김 위원장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첨단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섬뜩한 대남 선전포고를 하였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현예슬 2024). 이 선전포고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김 위원장은 핵무기 사용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최악의 경우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Gallucci 2024). 지금까지의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볼 때 그는 외부로부터 위협과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하게 저항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¹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세 명의 부자는 남한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유지해 왔다. 반면 오 년 담임제의 한국 대통령들은 장기적인 대북전략의 부재 속에서 좌충우돌하여 왔다.

불행히도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둘 다 화약고 같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과 한층 강화된 핵우산조약을 맺었다.²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신원식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김 위원장을 참수할 수 있는 특수 부대를 운영할 것을 시사하였다(옥승욱 2023). 한편 북한의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강력한 미국의 군사무기를 남한에 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Kim 2023, Dec 19).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둘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Carlin and Hecker 2024; Choi 2023, Feb 9).

필자는 힘의 균형이 남북 간에 이루어질 경우, 재앙적인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남북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방식을 취하여 왔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북한은 대외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하기 위해 한국이 사용해 왔던 경제모델을 채택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은 한쪽이 다른 쪽을 도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게 된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남과 북 사이에 힘의 균형이 형성되게 되면 어느 측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도발이나 전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과거 노력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된 후 남북한은 더 이상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노력하여 왔다.

² 미국과의 신핵우산조약의 대가로 윤 대통령은 “[자신은] 절대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Reuters 2023).

최초의 긴장완화를 위한 시도는 남한의 군사 독재자인 박정희와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에 의해 1972년에 이루어졌다. 두 정상은 자신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막후 비밀협상을 벌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끌어냈다(Lee and Kim 1972; Radchenko and Schaefer 2017). 남측의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과 북한 로동당의 조직지도부 부장인 김영주가 서명한 성명서에서 남북 간은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성명서는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통일은 상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 민족으로서의 민족대단결을 먼저 추구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력강화에만 관심을 가진 박정희와 김일성은 남북공동성명서에 담긴 민족단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였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영구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국민들이 갑자기 찾아온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박 대통령은 발 빠르게 헌법을 개정하여 임기 제한 없는 독재자가 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하여 조작 및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남북통일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남한에서 미군철수를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안보동맹을 약화한 다음 남한에 대한 자신의 공산주의 지배를 확대하려는 검은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Radchenko and Schaefer 2017).

두 번째 남북 간의 긴장완화 노력은 당시 남한 대통령인 노태우와 김일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두 정상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획기적이고 참신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두 정상은 남북 양측이 상대방의 정치체제를 부인하던 기존의 적대적 외교방식에서 탈피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한반도에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서로가 인정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를 공식화하고자 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자 유엔총회는 두 나라가 주권국가임을 인정하는 유엔결의안 46/1을 1991년 9월 17일에 통과시켰다(

United Nations 1992). 이러한 국제적 인정은 서울과 평양이 1991년 12월 13일 평화공존을 위한 이정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노태우와 김일성은 일련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치적 화해와 불가침, 문화 및 경제 교류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³ 군사분야에서 두 정상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하였고 남북 간의 군사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동의하였다. 두 정상 간의 최종목표는 남북 간의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데 두고 있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남북 기본합의서를 이용하려고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Kwak 2002; Kwak and Joo 2017; Lee 2005; Sanger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군사독재자 노태우와 공산주의자 김 위원장 간의 접촉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이어지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기본 틀을 다져 놓았었다.

2000년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장을 연 한 해이다. 남북의 정상은 자신들의 대리자보다는 자신들이 상대방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한의 진보적인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남한 국민들의 북한 금강산관광 허용, 북한 체육선수단의 내한을 통한 스포츠교류 등등에 대한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의 힘을 쏟았다(Moon 2001).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있는 지 7년 후인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었다. 이 두 정상은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다(LA Times Archives 2007).

³ 평화를 도출하기 위한 노태우와 김일성 대화의 시발점은 북방정책(Nordpolitik)이었다. 북방정책은 헝가리, 중국,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위한 노 대통령의 획기적이고 참신한 외교정책이었다. 노 대통령의 북방정책으로 인해 김 위원장은 오랜 공산주의 동맹국들로부터 고립감을 느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희망한다는 명목으로 노 대통령과 대화를 시작하였다(Kwak 1991, 2022; Kwak and Joo 2017).

2018년 한 해는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였다. 이 당시 남북은 각각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남한은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발전에 노력하고 있었다. 두 정상은 4월 27일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있는 판문점 평화의 집 남측에서 만났다.⁴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영토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Fifield 2018).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의지를 표현하는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구문도 명시하였다.⁵ 문재인과 김정은은 군사적 긴장과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서해안 서부 지역에 평화지대를 조성하고, 군사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호 보장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적극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 달 뒤인 5월 26일에 한 자리에 모여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판문점 평화의 집 북쪽으로 이동하여 만난 비밀회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김 위원장과 북미회담 의제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았다(Stiles and Bierman 2018). 다음날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면서 자신은 김 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격식 없이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고 하였다(Hu 2018).

3차 남북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정상 간의 회담기간 동안 남북의 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자리를 갖고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군사합의서에 9월 19일 날짜로 서명하였다. 남북군사합의서는 모든 적대행위의 전면

⁴ 공동경비구역은 남북한을 가르는 250km 길이의 비무장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남북회담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Kim and Choi 2023).

⁵ https://www.mofa.go.kr/eng/brd/m_5478/view.do?seq=31913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를 참조.

중단,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지대화, 교류와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마련, 남북 군 상호신뢰대책의 발전 등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Ward 2018).

필자가 보기에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남북 간에 다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시기도 있었지만, 양측의 지도자들은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거나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측의 지도자들의 정치성향을 보면 그들은 때로는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적 성향의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Nordpolitik)은 남북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정치적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Chung 1991). 노태우의 북방정책 이후 진보적 사고를 지닌 대통령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마다 북방정책의 기본 취지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남한에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남북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자신들 나름대로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여 왔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도 정치활동을 하거나 국가행정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남한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 27년 간은 검사로 일하며 모든 일을 흑백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받았다. 윤석열이 2021년 3월 4일 법조계를 떠날 당시의 신분은 모든 검사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이었다.⁶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자마자 대통령선거에 뛰어들어 48.56%라는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는 상대방 후보의 47.83%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 불과 1년 만에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윤석열은 정말이지 아슬아슬한 승리를 쟁취하였다(Choi 2022, Feb 9 and July 24).

⁶ 한국의 검찰총장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외교정책 또한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전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도 윤 대통령은 “검찰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흑백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라고 평가하였다(강경훈 2022). 미학자이자 평론가이며 대학교수인 진중권 또한 윤 대통령의 정책결정은 너무 단순 무식하며 일방적이라고 혹평하기도 하였다(이명선 2024, 1월 18일). 윤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가 있으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자기 원수로 간주하고 있다.⁷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도발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정치적 상대자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를 하는 술선수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와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대북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은 주권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도발에 바탕을 둔 정치행위를 하는 김 위원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뺑카를 남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은 만일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으로 향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선제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Choi 2022, Feb 9 and July 24).

윤 대통령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정치행위가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그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권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때때로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기만전술에 의지한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국내정치에서의 도덕과 법의 기준을 국제정치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개발하다가 보니 국제법을 자주 무시하는 김 위원장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단숨에 응징하여야 한다고

⁷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발간한 대한민국 국방백서(2022, 39)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강자가 항상 약자를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의 한평생을 법전에 파묻혀 살아왔기 때문에 국제관계나 지나간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미군이 월등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트남전에서 베트콩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물리칠 수 없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과 비교하면 김 위원장은 적어도 11년 이상 대남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용이주도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 취임한 첫해인 2011년부터 윤 대통령의 취임일인 2022년까지 합하면 도합 11년이란 계산이 나온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 시절부터 내려오는 대남정책과 관련된 비책을 권력승계자인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학습하고 연구하였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⁸ “음모와 기만에 능통하고 매우 현실적인 정치인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남정책 지침을 김 위원장은 가슴에 새기고 있다.⁹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P. 로저스도 김일성은 무지무지하게 영리한 대남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Radchenko and Schaefer 2017, 275).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김 위원장도 힘에 의한 정치가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현실주의자다. 자기 가족과 북한정권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김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의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빠른 개발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아 오고 있다. 사실 거짓말과 기만은 국가지도자들이 자국을 보호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전술이라고 저명한 정치철학자인 토마스 합스(1651/2014)는 주장하였다. 거짓말과 기만은 국제정치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솔직함에만 기반을 둔 국가지도자들은 국제무대에서

⁸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이제 고작 열한 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다(이용수 2024, 1월 4일).

⁹ 김 위원장의 최근 대남정책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대남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London and Bae 2024).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도는 자신의 대남정책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윤 대통령을 잠시 겁박하여 북한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Mearsheimer 2011).¹⁰ Carson(2010, chapter 12)의 국가지도자들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W. 부시, 딕 체니 같은 민주주의 지도자들조차도 전시에 국민들과 적들을 상대로 기만정치를 일삼았다. 다른 국제정치학자들의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개개의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외교 영역에서도 속임수, 기만, 그리고 힘에 의한 정치활동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Kolesnyk and Holtseva 2022, 154). 간단히 말하면 국가지도자들이 만일 정직이나 정의감에만 의존하는 외교정책만을 펼치면 국익을 제대로 수호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이다.

힘의 정치의 신봉자인 김 위원장은 실용주의자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대남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 남한의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다. 남한의 지도자가 남북협력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거짓말, 위협, 협박, 각양각색의 술책,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기는 무지막지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 왔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김 위원장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을 때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나름 남북협력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자신의 선군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아마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감언이설에 속아 자신들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였지만,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미국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실을 김 위원장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Braut-Hegghammer 2016). 따라서 김 위원장이 원자폭탄 개발에 전력을 추구하는 것은 그가 냉철한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독재권력이 미국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국제상황을 보는 판단능력이 뛰어나면서 남북관계가 흑백의 대결을 벗어나서 완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도 보지만, 윤 대통령은 모든 상황을 흑백논리로만 보려고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남한과 미국은 좋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과

¹⁰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신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거나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고안된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속임수는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Mearsheimer 2011, 15-16).

중국은 상대할 수 없는 나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강경훈 2022).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이러한 극명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두 정상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들의 대리자를 통한 외교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필자는 남북한 사이의 유례없는 적대감 고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흑백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세계관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만간 진보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윤 대통령 원래가 그런 성향의 지도자이다.

김 위원장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악한 지도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있기 전 선제타격으로 응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Choi 2022, Feb 9 and July 24),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이정은 2023, 12월 18일). 하지만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한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배짱이 있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북위협을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미국이 승인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¹¹ 만일 윤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실제 감행하더라도 북측보다 남측에 더 피해가 끼칠 것이라는 점 또한 김 위원장은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협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유출할 수가 있다. 반면, 북한의 대남전략은 종종 무자비하거나 비이성적이라는 평판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협박을 그냥 무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Nieburg 1962). 무엇보다도 2024년 1월 19일에 미국의 NSC 전략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인 존 커비는 “핵 능력을 포함해 첨단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협박은 신중하게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¹¹ 2010년 11월경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기습폭격으로 연평도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하여 강력한 군사보복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거절하였다(Gates 2015).

¹²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4/01/19/press-briefing-by-press-secretary-karine-jean-pierre-and-nsc-coordinator-for-strategic-communications-john-kirby-40/>을 참조.

윤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의 한 조항을 유예시키자마자 김 위원장은 합의서 자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긴장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18년에 만들어진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태어났었다. 혹자는 남북군사합의서는 보수적 성향의 노태우 대통령이 27년 전에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좀 더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혹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더욱 빠르게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들의 논평을 직접 인용하자면, 한용섭(2019, 23)은 남북군사합의서가 “정권을 초월해서 장기적으로 준수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종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군사합의서는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서문이라고” 주장했다(전홍기혜, 이명선 2018).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한의 병사들이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만 군사활동이 허용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와 서해북방한계선을¹³ 중심으로 양측 군대의 기동을 제한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이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2023년 11월 22일 남한이 한 개 조항을 유예조치하고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는 남북 간의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에 이바지하여 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였기에 남한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윤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전투기, 정찰기, 헬리콥터,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군사합의서 1조 3항을 효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조항을 유예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남한의 우월한 공군력과 정찰 능력을 대북억지력에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도를

¹³ 서해북방한계선은 한반도 서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해양 경계선이다.

¹⁴ 남한도 11일 후에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었다(김환용 2023년 12월 4일). 윤 대통령의 위선적인 행보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빠르게 간파한 김 위원장은 군사합의서 자체를 즉각 파기하는 보복을 감행하여 남북 간의 긴장수위를 높였다(김환용 2023, 11월 23일; 신민정 2023).

남북군사합의서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이바지하였다고 한 필자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2022년 국방백서에¹⁵ 따르면 2018년 9월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및 국지도발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대남침투는 총 27건이나 되지만 지난 4년(2019~2022년) 동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육·해·공상에서 발생한 국지도발은 무려 237건이나 되지만 지난 4년 동안은 단지 2건에 불과하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대남 적대 행위를 억제하고 남북 간 평화체제의 지속성 높여 왔었다.

표 1 북한의 대남침투와 국지도발 현황
2022년 12월 31 현재

연도	대남침투	국지도발
1950년대	379	19
1960년대	1,009	327
1970년대	310	93
1980년대	167	60
1990년대	94	156
2000년대	16	225
2010-2018	27	237
2019	0	0
2020	0	1
2021	0	0
2022	0	1

출처: 대한민국 국방백서 2022, 352.

¹⁵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itn/PBLICTNEBOOK_202307280154039760.pdf를 참조.

남북군사합의서가 파기되면서 남북한은 긴장 완화의 길을 버리고 서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양측 정상들은 상대방에 대한 공세적 대응만이 자신들의 생존과 안보를 지켜 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는 더 이상 협력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강 대 강이라는 대남전략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였다.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1일 “남북관계는 적대국과 교전국의 관계가 됐다”라고 한 발표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Chen and Seo 2024).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남한과의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을 무력으로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땅으로 규정하였다. 남측을 겁박하기 위하여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5 일 서해 북방한계선 완충지대를 향해 포탄 약 200발, 6일에는 약 60발, 그리고 7일에는 약 90발의 시험 발사를 하게 하였다(이승은 2024, 1월 7일). 김 위원장의 이러한 대남 도발행위는 전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2013~2016)에 의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계기로 남북 간 경계지역 주변에서 긴장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었다(조준형 2023). 윤 대통령은 북한의 포탄도발에 대한 보복으로 400여 발의 포탄을 북쪽을 향해 시험 발사 시켰다(홍제표 2024).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 달 전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 지속 도발 시 김정은 참수를 목표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대북 협박을 이미 하였다는 것이다(옥승욱 2023).

잠시 요약하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평화를 위해 노력하던 남북관계는 이미 먼 옛날의 기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하루아침에 건원지간이 되어 버렸다. 필자가 보기에 남북관계 악화의 결정적인 이유는 외교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윤 대통령이 모든 문제들을 흑백논리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대남정책을 직시하고 이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불행히도 윤 대통령의 대북뺑카전략은 실패하고 있고, 특히 2023년 11월 남북군사합의서를 부분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그는 남북관계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의 부분적 중단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려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 위원장은 눈도 하나 깜빡이지 않고 즉시 남북군사합의서를 백지화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북한은 마치 정면으로 충돌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두 대의 열차처럼 행동하고 있다.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필자는 남과 북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상황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군사합의서를 둘러싸고 윤과 김이 대립한 것도 두 정상이 자신들의 군사력이 우월하다고 과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으로 인해 남한의 군사력을 과신하고, 김 위원장은 자신의 핵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두 정상은 만일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 모두가 같이 공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신은 자기편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가볍게 무효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세력균등을 이룬다면 전쟁의 결과를 어느 한쪽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북 간의 힘의 격차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한은 지난 60년간 수출주도 전략으로 경제대국이 되었고, 경제적 부를 국방력 강화에 쓰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육상, 해상, 공중을 넘나들며 싸울 수 있는 각국의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2024년 글로벌 화력 지수(Global Firepower Index)에 따르면, 남한은 145개 국가 중 5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남한은 핵무기 획득을 등한시켰기 때문에 육지, 바다, 심지어 공중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강력한 핵미사일을 지니고 있는 북한의 군사력에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면서 2024년 세계화력지수에서 36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이현오(2023년 8월 25일)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남한의 군사력보다 최소한 1.6배 더 강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력이 우세하고 남한은 경제력이 강하다. 군사와 경제 부문의 힘의 불균형은 남과 북의 정상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해 오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 한반도는 아직도 혼란과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관계 학자들은 국방력 강화와 국가들 간의 안보동맹을 통해 국가들 간에 힘의 균형이 달성되면 국제정치체제의 안정성이 높아져 국가들 간의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과 소련 간의 세력 균형은 1945년부터 1991년까지 냉전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을 아주 희소화 시켰다(Levy 2013; Mearsh eimer 1990; Morgenthau 1985; Waltz 1979; 반대 의견은 Kugler and Lemke 1996; Sabrosky 1985 참조). 힘의 균형은 국가들 간의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남북한이 전면전을 피하려면 남한은 군사력 그리고 북한은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필자는 도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어느 한쪽도 절대적인 힘의 우세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남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한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¹⁶ 필자의 제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확률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남북 간의 핵균형을 이루게 되어 중국적으로 김 위원장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남한의 핵무장은 또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사용에 대한 억제력도 제공한다(Morgan 2003; Waltz 1990). 이렇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공갈과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경쟁관계로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들로부터도 남한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핵무장을 이루기 위하여 윤 대통령은 북한이 30년 간 사용한 전술을 모방하여야 한다. 북한의 김씨 일가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한국과 미국을 속이고, 비밀리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첫 핵실험을 2006년에 성공시켰다(Reiss and Gallucci 2005).

현존하는 핵강국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면서 거짓말과 기만이라는 동일한 전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동일한 전술에 의존하며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비밀연구개발 프로그램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945년 일본제국을 상대로 두 개의 핵폭탄을 성공적으로 투척한 후 전쟁을 승리로 마쳤다(Sullivan 2016). 속적인 미국의 핵무장 소식에 놀란 구소련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핵 보유국이 되었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안보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1952년 핵폭탄 실험에 성공한 후 소련의 핵무기에 자체적으로 대항할 힘을 비축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인 프랑스도 핵무장을 하였는데 이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1960년 첫 번째 폭탄이 성공하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

¹⁶ 한국은 핵무기 개발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여 북한에 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Bowers and Hiim 2021).

졌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프랑스의 핵개발은 전 미국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그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헨리 키신저의 전폭적인 비밀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프랑스의 핵전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Barr 2024). 1960년대 중국은 가난에 찌든 후진국이었지만 비밀리에 핵무장을 추구하여 1964년에 성공하였다. 남아시아의 최대 라이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1974년과 1998년에 핵폭탄을 확보해 서로가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은 1966년부터 핵 보유국으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에 두면서 아직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눈속임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Harding 2006; Reed and Stillman 2010).

국제무대에서 핵무장을 하려는 국가들은 항상 거짓말과 기만이라는 전술을 흔히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권국가인 남한도 같은 방식으로 핵무장게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은 최첨단 군사력의 열세를 메우고, 대북 세력균형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함께 평화공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남한 핵무장의 장벽

윤 대통령이 핵무장을 하려면 몇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에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명심하여야 할 것은 미국도 핵무기개발에 착수하면서 전 세계를 기만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윤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핵무기를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 더 명심할 것은 미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핵비확산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수십 년에 걸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에 핵실험을 성공시켰다. 미국은 즉시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거세게 반대하며 심각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의 희생자가 된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면서 파키스탄의 도움이 필요해지자 당시 미대통령인 조지 W. 부시는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아침에 풀어 주었다(Harding and McCarthy 2001).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자신들이 세운 국제법, 규정 및 원칙들을 언제나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남한은 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정당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첫째, 남한의 주적인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배치하고 운용 중이며 2022년 9월 8일 김 위원장은 만일 자신의 정권과 북한주민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징후가 보일 경우 핵무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김 위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주로 억제하기 위해서만 운용되어 오던 방어 개념의 핵무기를 선제타격을 위한 공격수단으로 바꾸어 놓았다(조한범 외 2022, 51). 김 위원장은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 한 상황에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또한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군수뇌부에 부여해 놓고 있다(Kim 2022). 김 위원장이 핵무기 사용의 최종결정자와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놓음으로써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핵전쟁의 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남한의 핵무장화가 김 위원장의 적대적인 핵도발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유럽에서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도움을 주워왔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일 수도 있다(Barr 2024).

둘째,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주적이 핵무장을 했을 때, 다른 쪽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에 지체 없이 착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련은 경쟁 상대인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핵무기경쟁에 돌입하였다. 미국의 적국인 소련이 불과 4년 만에 역사상 두 번째의 핵 보유국이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소련의 핵무장에 놀란 영국과 프랑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핵무기 실험에 착수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앙숙인 두 나라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인도가 핵 능력을 갖추었을 때 파키스탄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인도와의 오랜 민족적 종교적 적대관계를 고려할 때 파키스탄의 핵무장화는 자국의 생존, 안보, 세력균형이라는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였었다(Reed and Stillman 2012).

셋째, 압도적으로 많은 남한 국민들이 핵무장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핵무기의 남한 재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lton, Friedhoff, and Kim 2022; Lee 2022, Feb 21).

윤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야당은 핵무기가 무지막지한 살상력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에 근거한 빈약한 주장이다. 야당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류 역사상 핵폭탄은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 일본 식민주의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은 두 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약 105,000명의 일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¹⁷ 그러나 두 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한 전체 사상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 약 300만 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다(Rummel 1998, Chapter 3). 따라서 미국의 핵폭탄 사용이 전 세계의 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구원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야당은 또한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원자력발전소까지도 반대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야당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정혁준 2023; 이재기 2021, 12월 28일). 그러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야당은 남한의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핵균형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장점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또한 남한의 핵무장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이고 해외 원자재 공급망은 제조업과 무역업의 성공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국가 경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한겨레 2024).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견해이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강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의 경제 규모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다.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세계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¹⁷ https://www.atomicarchive.com/resources/documents/med/med_chp10.html을 참조.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 시장에 타격이 가해지면 세계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⁸

둘째, 미국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자신의 우방국인 한국을 잃을 여유가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파트너 중 하나로 한국이 필요하므로¹⁹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장을 강행하게 되면 반대하기보다는 용인하여 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례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과 함께 하는 칩 4 동맹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칩 4 동맹은 반도체라는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미대통령 조셉 바이든에 의해 주도되었다(Moon and Lee 2022). 즉 조셉 바이든은 반도체를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칩 4 동맹을 결성하였다. 반도체는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및 광범위한 인터넷 연결망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모든 주요 미국 국방 시스템 및 플랫폼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기도 하다. 반도체는 특히 첨단 미사일 시스템부터 국방 부문의 레이더 및 통신 장치에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 될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Shiv akumar and Wessner 2022).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7.7%라는 높은 점유율 차지하는 전 세계 2위 국가이다.²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윤 대통령이 만일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려고 할 경우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일 위의 논리들 중 어떤 것도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남한이 경제제재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남한은 이미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¹⁸ 필자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비유로 들고 싶다. 양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가 경영실패와 경제위기로 몰락 위기에 처했을 때, 버락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 정부는 그들이 경영위기를 돌파하도록 후원하여 주었다. 그들이 도산했을 경우 그 피해는 너무 막대하여 미국 경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였기 때문이었다(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uploads/auto_report_06_01_11.pdf 참조).

¹⁹ 미국이 펴낸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2022, 4)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과 철통 같은 조약동맹을 통해 이 지역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으며, 지역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안보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²⁰ <https://www.investkorea.org/ik-en/cntnts/i-312/web.do>를 참조.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일 한국이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어려운 시절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활용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북한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필품들조차 적절히 조달을 못할 정도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무역교역량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북한은 경제분야에서 남한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남한의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도입하여야 한다. 만약 남한과 균형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안정화된 정상국가로 접어들 수 있고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남한과의 적대적 분쟁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제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가 자신들을 옴아매고 있는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투자를 받는 대가로 더 이상의 핵실험과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ICBM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한다(DePetrìs 2023; Park 2022).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안보에 치명적인 ICBM 폐기를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조건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검증 과정, 절차, 기술적 사항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의 경제개발정책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안은 다수의 워싱턴 외교정책결정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외교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이 2023년에 5차례 시험발사에 성공한 ICBM이 30분 만에 (또는 극초음속 방식이라면 더 빠른 속도로) 워싱턴 DC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다(Park 2023; Sankaran and Fetter 2022). 사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는 많은 양의 ICBM을 생산하였다(Ward 2023).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여 온 미국 본토방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ICBM은 다수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44개의 지상기반 요격체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Klingner 2023; 조한범 외 2022). 또한 북한의 ICBM은 고체 연료 미사일 캐니스터를 탑재한 차량을 통해서 쉽게 발사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 즉, ICBM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국이 지상에서 발사준비 중인 ICBM을 격추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Ward 2023).

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ICBM의 위험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워싱턴의 외교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것을 회피하는 쪽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재조정하고 싶어 할 것이다. 북한(및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할 때 미국은 “자국의 위협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지역 강대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선호”하여야 한다는 역외균형 전략론(offshore balancing)도 이에 상응한다(Mearsheimer 2001, 266). 워싱턴의 외교정책결정자들이 김 위원장의 경제계획과 관련된 협상안에 손을 들어주고 동아시아지역의 맹주가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면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으면 전자는 후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독재자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Pacheco Pardo 2022),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 지원, 외국인 직접 투자, 현금지원, 기술 이전, 전문 지식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구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경제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액을 협상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벌인 전쟁범죄로 인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교협상을 통해 배상금 5억 달러와 상업차관 3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이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끝내 관철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도박은 성과를 거두어 한강의 기적, 즉 남한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Pacheco Pardo 2022).

김 위원장은 또한 남한을 향한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2002년 남북한 간의 공동 경제 프로젝트였지만 남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업지구(KIR)를 재개방하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KIR은 한국의

제조업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가장 이상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한 사례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KIR은 정치적 화해를 목표로 하는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다. 남한의 경우 KIR은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 불신을 줄이고,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디딤돌이었다(Choi 2016). 김 위원장은 남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KIR 개설의 본래 취지와 정신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더 많은 공동 경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경제발전의 장벽

김 위원장의 경제 구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반대다. 9/11 테러 이후 미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하루아침에 북미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것은 정설이다. 부시 미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불량국가들의 핵심멤버로 규정했다(Carlin and Hecker 2024; Cumings, Abrahamian, and Maoz 2004). 부시 미대통령의 협박 아닌 협박에 가득 찬 국정연설에 크나큰 불안감을 느낀 북한은 불량 행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도를 붙였다. 북한은 서둘러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제작 및 수출하고, 테러 행위를 후원하고, 마약 거래 및 위조에 가담하여 미국의 추가적인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었다(Holmes 2015).²¹ 북한이 최빈국에서 탈출하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려면 김 위원장이 미국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하고, 국교정상화를 하고, 미국의 지원과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그 대가로 김 위원장은 현재 미국 영토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ICBM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미국에 해 주어야 한다.

김 위원장의 경제 구상에 대한 또 다른 장애물은 윤 대통령의 반대이다. 윤 대통령은 끊임없는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김 위원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뺑카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북한과 대화도 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윤 대통령의 싸늘하고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

²¹ 유엔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기타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1993년부터 북한에 일련의 경제 제재를 가해 온 또 다른 기관이다. 북한은 무기나 사치품의 수출입, 국제 자금 거래/세탁, 외교관의 자유 여행 등이 금지되어 있다(Spitzer 2016).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협력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² 김 위원장은 정치이념의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남한대통령 노태우의 북방 정책을 수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할아버지 김일성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의 할아버지는 남북화해가 북한 경제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정 1991).

결론

6·25 전쟁 이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남북은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흑백논리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전면에서 세우고 김 위원장을 악마화하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히 역행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첫 번째는 김 위원장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을 버리고 대신에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식화하고 남한을 무력통일하겠다는 의지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Choe 2024; Gallucci 2024; Lendon and Bae 2024). 두 번째는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가장 호전적으로 알려진 박종천을 자신의 바로 아래인 군 최고부사령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다수의 대남 강경파들을 요직에 등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남한과의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Carlin and Hecker 2024; 최유찬 2024; 현예슬 2024).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하나의 의문은 윤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 10명 중 9명이 윤 대통령의 협박과 뺑카는 김 위원장의 적대적 도발행위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협박과 뺑카에 의존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채림 2023).

시간이 더 흐른 미래가 되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필자는 2023년 11월 남북군사합의서의 파기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윤

²²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outh-korea-market-overview>를 참조.

대통령의 무분별한 대북 외교정책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남북관계를 한국전쟁 이후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중단됐던 대남 침투와 국지도발을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벌써 군에 명령하였을 것이다(표 1 참조).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남북 평화공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 위원장을 한 해에 무려 세 차례나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적인 대북정책을 자주 비판하여 왔다.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를 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아 왔다. 윤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남한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김 위원장의 끊임없는 군사도발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던 윤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서슴지 않고 폐기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군사합의서가 윤 대통령과 같은 보수당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정책 유산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윤 대통령은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당 출신의 윤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행위는 보수 전직 대통령과 보수당,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 온 많은 국민들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가장 큰 이유는 남한과 북한은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대량의 포탄을 공급하기에 바빠 남과 북이 전면전을 치르기에 충분한 포병화력을 비축하지 못하고 있다(Choe 2023; 강현태 2024). 전쟁을 시작하고 승리하려면 지도자의 강인한 의지와 풍부한 병력자원과 함께 강력한 포병화력이 필수적이다. 포병화력은 군 지도자가 전장에서 자신들의 지상군을 지원하거나 적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 매우 유효하다. 따라서 포병화력은 적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거나 다량의 사상자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Bailey 2003; Mearsheimer 2023).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쟁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무기거래의 이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만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남북한 양측은 매우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무기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자신들의 전쟁비용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전면전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무기거래에 얻은 이득과 러시아와의 동맹 재개라는 자신의 업적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윤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는다면 남북관계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해안이 트일 것이며, 김 위원장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하는 대북협박과 뺱카보다도 핵무장이 북한의 호전성과 남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도가 핵폭탄을 만들면 우리는 풀이나 나뭇잎을 먹고 심지어는 배고픔에 시달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핵무장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한 줄피카르 알리 부토 파키스탄 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은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Singh 1979). 윤 대통령이 만일 파키스탄 총리가 핵무장을 왜 그렇게 열망하였는지를 무시해 버린다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2차 한국전쟁에 승리를 전혀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남한이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은 절대로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끝/

참고문헌

- 강경훈. 1월 27일, 2022.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윤석열처럼 하면 '신냉전', 다 죽자는 것.'" 민중의 소리. <https://vop.co.kr/A00001608235.html>.
- 강현태. 1월 7일, 2024. "북한, 불량국가들의 병참기지 되나." 데일리안. <https://dailian.co.kr/news/view/1314753>.
- 김민찬. 12월 20일, 2023. ".윤 대통령, 사흘 연속 대북 메시지..야당 '허세이자 안보 무능.'"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5122_36199.html.
- 김환용. 11월 23일, 2023. "북한,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한국 '도발 시 강력 응징.'" VOA. <https://www.voakorea.com/a/7366972.html>.
- 김환용. 12월 4일, 2023. "북한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 양측 추가 발사 예고 '위성 경쟁.'" VOA. <https://www.voakorea.com/a/7383114.html>.
- 박응진. 12월 18일, 2023. "北 연이틀 탄도미사일 도발... ICBM 발사는 5개월 만." News 1. <https://www.news1.kr/articles/?5264488>.
- 신민정. 11월 22일, 2023. "9.19 남북군사합의 5년 만에 일부 효력정지...윤 대통령 재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7323.html.
- 옥승욱. 12월 19일, 2023. "신원식 '북 지속 도발시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도 고려.'"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1219_0002562850.
- 이명선. 1월 18일, 2024. "진중권 '방심위원 해촉 尹, 단순 무식 과격...'청부 민원' 류희림 구속시켜야."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1811163405708>.
- 이승은. 1월 7일, 2024. "北, 서해서 90여발 이상 사격 도발...軍 "즉각 중단 촉구."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1070072>.

이용수. 1월 4일, 2024. "후계자 김주애?"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4/01/04/KCXRVQ7GMVBJHLDRLB5AGSACYU/>.

이재기. 12월 28일, 2021. "감원전 친원전에 文정부 탈원전은 풍전등화...원전정책 가변성 높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80036>.

이정은. 12월 18일, 2023. "윤 대통령, 북 ICBM에 '즉시 압도적 대응..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4190_36119.html.

이현호. 8월 25일, 2023. "지금 전쟁나면 누가 이길까...남북 군사력 100대 97."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JM2A2QX>.

전홍기혜, 이명선. 9월 27일, 2018. "김종대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위한 버퍼링 작업.'"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1765>.

정혁준. 10월 30일, 2023. "'40년간 관찮았다'며 원전 6개? '후쿠시마 사고도 예측 못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978.html.

조준형. 12월 1일, 2023. "前연합사령관, 남북군사합의 무력화에 'DMZ:NLL서 긴장 커질것.'"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1002900071>.

조한범, 김태원, 우정엽, 이인배. 202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KINU 연구총서 22-1 2. 서울: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6f373205-e7cb-4220-bdcd-15656c106800>.

최유찬. 1월 6일, 2024. "박정천 복귀..북한 군 인사 대거 약진."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59972_36515.html.

하채림. 12월 13일, 2023. "국민 87% '내년 북한 도발 강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세질 것.'"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3147300504>.

한겨레. 1월 22일, 2024.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인터뷰 : 한반도 위기, 진단과 해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25335.html>.

한용섭. 2019. "군비통제 관점에서 본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의와 전망." 국가전략 25 (2): 5-31.

현예슬. 1월 9일, 2024. "김정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897#home>.

홍제표. 1월 7일, 2024. "연이틀 서해서 '광광'...대만 걱정했는데 더 위험해진 한반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74711>.

Bailey, J.B.A. 2003. *Field Artillery and Firepowe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Barr, William. 2024. "U.S. Secret Assistance to the French Nuclear Program, 1969-1975: From 'Fourth Country' to Strategic Partner." Washington, D.C. Wilson Center . <https://www.wilsoncenter.org/publication/us-secret-assistance-to-the-french-nuclear-program-1969-1975-fourth-country-to-strategic>.

Bowers, Ian and Henrik Hiim. 2021. "Conventional Counterforce Dilemmas: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45 (3): 7-39.

Braut-Hegghammer, Målfrid. 2016. *Unclear Physics: Why Iraq and Libya Failed to Build Nuclear Weap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Carlin, Robert and Siegfried Hecker. January 11, 2024.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4/01/is-kim-jong-un-preparing-for-war/>.

Carson, Thomas. 2010. *Lying and Deceptio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hen, Heather and Yoon-Jung Seo. January 1, 2024. "North Korea says, It will No Longer seek Reunification with South Korea, will launch New Spy Satellites in 2024." *CNN*. <https://www.cnn.com/2023/12/31/asia/north-korea-reconciliation-south-korea-intl-hnk/index.html>.

- Choe, Sang-Hun. February 10, 2016. "South Korea to shut Joint Factory Park, Kaesong, Over Nuclear Test and Rocket."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6/02/11/world/asia/north-south-korea-kaesong.html>.
- Choe, Sang-Hun. January 16, 2024. "North Korea Says It is No Longer interested in reunifying with the South."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4/01/16/world/asia/north-korea-reunification-policy.html>.
- Choe, Sang-Hun. September 14, 2023. "History Turns Upside Down in a War Where the Koreas Are Supplier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09/14/world/asia/north-south-korea-ukraine.html>.
- Choi, Seung-Whan. August 21, 2022. "South Korea's Yoon could be the weakest link in the next Korean War." *Hill*.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4158145-south-koreas-yoon-will-be-the-weakest-link-in-the-next-korean-war/>.
- Choi, Seung-Whan. February 9, 2022. "The Possibility of War looms over the Korean Peninsula." *Hill*.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93204-the-possibility-of-war-looms-over-the-korean-peninsula/>.
- Choi, Seung-Whan. July 24, 2022. "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an-biden-save-south-korea%E2%80%99s-unpopular-president-himself-203724>.
- Chung, Tae Dong. 1991. "Korea's *Nordpolitik*: Achievements & Prospects." *Asian Perspective* 15 (2): 149-178.
- Cumings, Bruce, Ervand Abrahamian, and Moshe Maoz. 2004. *Inventing the Axis of Evil: The Truth About North Korea, Iran, and Syria*. New York: New Press.
- Dalton, Toby, Karl Friedhoff, and Lami Kim. February 2022. "Thinking Nuclear: South Korean Attitudes on Nuclear Weapons."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globalaffairs.org/sites/default/files/2022-02/Korea%20Nuclear%20Report%20PDF.pdf>.

- DePetrìs, Daniel. December 19, 2023. "The U.S. needs a Dramatic Shift in North Korea a policy. Trump might have the Right Idea." *MSNBC*. <https://www.msnbc.com/opinion/msnbc-opinion/north-korea-nuclear-weapons-trump-rcna130437>.
- Fifield, Anna. April 27, 2018. "In a Feel-Good Korea Summit, Kim lays the Groundwork for meeting with Trump."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orth-and-south-korea-agree-to-work-toward-common-goal-of-denuclearization/2018/04/27/7dcb03d6-4981-11e8-8082-105a446d19b8_story.html.
- Gallucci, Robert. January 11, 2024. "Is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Possible in 2024?"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iplomacy-between-us-and-north-korea-possible-2024-208528>.
- Gates, Robert. 2015.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New York: Vintage.
- Harding, Luke and Rory McCarthy. September 23, 2001. "Sanctions lifted as the US rewards Pakistan."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1/sep/24/pakistan.afghanistan>.
- Harding, Luke. December 12, 2006. "Calls for Olmert to resign after Nuclear Gaff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6/dec/12/germany.israel>.
- Hobbes, Tomas. 1651/2014. *The Leviathan*. Hertfordshire: Wordsworth.
- Holmes, Kimberly. Ed. 2015. *U.S. and UN Sanctions on North Korea: Target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New York: Nova Science.
- Hu, Elise. May 27, 2018. "South Korea's Moon: Kim Jong Un still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NPR*. <https://www.npr.org/sections/parallels/2018/05/27/614805681/south-koreas-moon-kim-jong-un-still-committed-to-denuclearization#:~:text=A%20topsy%2Dturvy%20week%20on,who%20met%20on%20Kim's%20request>.

- Kim, Do-Gyun and Soo-Hyang Choi. July 19, 2023. "North Korea: What are the DMZ and JSA and What happens on Border Tour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heavily-fortified-north-korea-border-area-magnet-tourists-2023-07-19/>.
- Kim, Hyung-Jin and Mary Yamaguchi. December 18, 2023. "North Korea conducts First Long-Range Missile test in Months, likely firing a Solid-Fueled Weapon." *Associated Press*.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missile-launch-bc0391e981b2eedce5dc17734e27ee0c>.
- Kim, Hyung-Jin. December 19, 2023. "North Korea's Kim threatens 'More Offensive Actions' against US after watching Powerful Missile Test." *Associated Press*. <https://apnews.com/article/north-korea-kim-icbm-missile-us-bf6bec75fca1fc2bf04170b9f65f274d>.
- Kim, Tong-Hyung. September 9, 2022. "N. Korea says It will Never give up Nukes to counter US." *Associated Press*. <https://apnews.com/article/asia-united-states-south-korea-nuclear-weapons-north-acad3f4abf01c88a2dd8be02860d8c8e>.
- Klingner, Bruce. February 15, 2023. "North Korea's Growing ICBM Threat: How America and South Korea Should Respond."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north-koreas-growing-icbm-threat-how-america-and-south-korea-should-respond>.
- Kolesnyk, Oleksandr and Mariia Holtseva. 2022. "Lies and Deception in Modern English Diplomatic Discourse: Pragmatics in Interdisciplinary Focus." *Cogito*. 14 (1): 154-173.
- Kugler, Jacek and Douglas Lemke. 1996.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wak, Tae-Hwan and Seung-Ho Joo. 2017.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New York: Routledge.

- Kwak, Tae-Hwan. 1991. "Conditions for Korean Political Integration: A Creative Adjustment." *Asian Perspective* 15 (1): 37-68.
- Kwak, Tae-Hwan. 2002. "The Korean Peace-Building Process: An Inter-Korean Cooperation Approach." *Pacific Focus*. 17 (2): 5-33.
- L.A. Times Archives. October 3, 2007. "U.S. backs Plan to disable North Korean Nuclear Sites."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7-oct-03-fg-koreas3-story.html>.
- Lee, Goo. 2005.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Evolving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Early 1990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7 (3): 27-61.
- Lee, Hu-Rak and Kim Young-Joo. July 4, 1972. "The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United Nation Peacemaker.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KR%20KP_720704_The%20July%204%20South-North%20Joint%20Communiqu%C3%A9.pdf.
- Lee, Michelle Ye Hee. February 21, 2022. "Nuclear Weapons to confront China and North Korea, Poll Finds."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2/02/21/south-korea-nuclear-weapons/>.
- Lendon, Brad and Ga-Won Bae. January 16, 2024. "North Korea's Kim vows to dismantle Father's Unification Arch as He declares South Korea 'Principal enemy'." *CNN*. <https://www.cnn.com/2024/01/16/asia/north-korea-kim-unification-arch-intl-hnk/index.html>.
- Levy, Jack. 2013. "War and Peace." In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Simmons.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s Angeles: Sage. 581-606.
- Mearsheimer, John.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1): 5-56.
- Mearsheimer, John.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Mearsheimer, John. 2011. *Why Leaders Lie: The Truth about Ly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arsheimer, John. 2023. "Bound to Lose." John's Substack. <https://mearsheimer.substack.com/p/bound-to-lose>.
- Moon, Chung-In and Sung-Won Lee. 2022. "South Korea's Geopolitics: Challenges and Strategic Choices." *Melbourne Asia Review*. <https://melbourneasiareview.edu.au/south-koreas-geopolitics-challenges-and-strategic-choices/>.
- Moon, Chung-in. 2001.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Peace Policy Toward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25 (2): 177-198.
- Morgan, Patrick. 2003. *Deterrence N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genthau, Hans. 1985.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McGraw-Hill.
- Niebur, H.L. 1962. "The Threat of Violence and Soci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 (4): 865-873.
- Pacheco Pardo, Ramon. 2022. *Shrimp to Whale: South Korea from the Forgotten War to K-Pop*. London: C. Hurst.
- Park, Won Gon. 2022. "How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 South Korean Perspective." In Sue Mi Terry. Ed. *Two Presidents, One Agenda: A Bluepri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020s and Beyond*. Washington, D.C.: Wilson Center. 12-14.
- Radchenko, Sergey and Bernd Schaefer. 2017. "'Red on White': Kim Il Sung, Park Chung Hee, and the Failure of Korea's Reunification, 1971-1973." *Cold War History* 17 (3): 259-277.
- Reed, Thomas and Danny Stillman. 2010. *The Nuclear Express: A Political History of the Bomb and its Proliferation*. Minneapolis: Zenith.
- Reiss, Mitchell and Robert Gallucci. 2005. "Dead to Rights." *Foreign Affairs* 84 (2): 142-145.

- Reuters. December 12, 2023. "South Korea, US to hold New Round of Nuclear Consultation Talks -Seoul." <https://www.reuters.com/world/south-korea-us-hold-new-round-nuclear-consultation-talks-seoul-2023-12-12/>.
- Rummel, Rudolph. 1998. *Statistics of Democide: Genocide and Mass Murder since 1900*. London: LIT Verlag.
- Sabrosky, Alan. Ed. 1985. *Polarity and War: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Boulder: Westview.
- Sanger, David. December 13, 1991. "Koreas Sign Pact renouncing Force in a Step to Unity."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1991/12/13/world/koreas-sign-pact-renouncing-force-in-a-step-to-unity.html>.
- Sankaran, Jaganath and Steve Fetter. 2022. "Defending the United States: Revisiting National Missile Defense against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46 (3): 51-86.
- Shivakumar, Sujai and Charles Wessner. June 8, 2022. "Semiconductors and National Defense: What are the Stake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analysis/semiconductors-and-national-defense-what-are-stakes>.
- Singh, Khushwant. July 1, 1979. "Pakistan, India and The Bomb."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1979/07/01/archives/foreign-affairs-pakistan-india-and-the-bomb.html>.
- South Korea's Defense White Paper. 2022.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https://www.mnd.go.kr/user/mnd/upload/pblicitn/PBLICTNEBOOK_202307280154039760.pdf.
- Spitzer, Kirk. January 6, 2016. "5 Reasons North Korea is a 'Rogue Regime.'" *USA Today*. <https://www.usatoday.com/story/news/world/2016/01/06/5-ways-north-korea-rogue-regime/78349910/>.

- Stiles, Matt and Noah Bierman. May 26, 2018. "Surprise Meeting by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was requested by Kim Jong Un."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com/politics/la-fg-korea-summit-20180526-story.html>.
- Sullivan, Neil. 2016. *The Prometheus Bomb: The Manhattan Project and Government in the Dark*.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 Washington, D.C.: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 United Nations. 1992.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91*. 45.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96.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 Waltz, Kenneth. 1990. "Nuclear Myths and Political Real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3): 731-746.
- Ward, Alex. September 19, 2018. "North and South Korea just signed a Major Agreement. It may be Bad News for Trump." *Vox*. <https://www.vox.com/2018/9/19/17878428/north-south-korea-kim-moon-declaration>.
- Ward, Alexander. 2023. "North Korea displays Enough ICBMs to overwhelm U.S. Defense System against Them."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3/02/08/north-korea-missile-capability-icbms-00081993>.